

## 필리피서 (성서 36 주간)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와 콜로새 공동체의 필레몬에게 각각 보낸 서간으로, 에페소서 및 콜로새서와 함께 옥중서간이라고도 부른다. 옥중서간이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필리피서

#### 필리피와 바오로

1. **필리피의 위치** : 필리피는 에게해 건너편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바오로 사도 당시에는 제국의 수도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 중심지이자 무역 중심지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기원전 360 년쯤에 건설한 도시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불렀다. 로마제국이 마케도니아를 점령한 후 기원 전 31 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2. **필리피와 바오로** : 바오로가 필리피에 처음 간 것은 2 차 선교여행(50~52 년쯤) 때였다. 사도행전에 따르면(16,6-40), 바오로는 환시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유럽 대륙에 첫발을 내디딘다. 네아폴리스를 거쳐 필리피에 도착한 바오로는 자색옷감장수 리디아라는 부인을 만나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부인의 간청으로 그 집에 잠시 머물러 필리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리디아 집은 말하자면 필리피 교회의 요람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필리피 사람들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는 등 고통을 당한 바오로는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난다.

#### 집필 배경과 시기, 장소

3. **필리피의 집필 배경** :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한마디로 필리피 신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후의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필리피 신자들은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에파프로디토스를 보내 바오로를 시종들게 하고 선물도 딸려 보냈다. 바오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 선물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필리 4,18)이었다. 그런데 에파프로디토스는 바오로의 시종을 들다가 그만 병이 나 죽을 뻔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필리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본 바오로는 그를 필리피로 돌려 보내는 길에 필리피 신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실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른 공동체들에게서는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필리피 신자들에게서는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2 코린 11,9 ; 필리 4,15-16)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필리피 신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오로의 마음이 서간 곳곳에서 묻어나 있다.
4. **집필 장소** :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곳은 어디일까? 아직도 설이 분분하다만 많은 학자들은 에페소를 꼽고 있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큰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1 고린 15,32 ; 2 코린 1,8-10 ; 11,23)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무른 것으로 보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5. **집필 시기** : 집필 시기는 코린토 2서를 썼을 때와 비슷한 시기 또는 그 직후인 55~56년쯤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 6. 구조

- 1, 1-26 : 인사와 신상 설명
- 1, 27-2, 18 : 신도들에 대한 권고
- 2, 19-30 : 파견 및 여행 계획
- 3, 1-4, 1 : 이단 경고
- 4, 2-23 : 당부와 마침 인사

## 7. 주요 내용과 특징

-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필리 1, 4-5) =>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교회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서간은 바오로 사도가 성찰한 내용과 묵상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 바오로 사도의 굳건한 신앙 (1, 20) => 살더라도 죽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바오로 사도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고백한다(1, 21) =>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가 언제이든 상관이 없다.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의 겸손(2, 6-8) => 예수님의 사목방법론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게 겸손되어 사목을 하셨다. 마치 밤새 소복히 내린 눈처럼 소리없이 사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다. => 하지만 우리의 방법론은 작은 일 하나 하면서도 앞서기를 좋아한다.
- 그리스도의 찬가 설명 : 복음서 전체를 담고 있으며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 낮춤은 그리스도가 주체이지만 높임의 주체는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사필귀정(모든 일을 반드시 정한대로 가고 있다)을 끝까지 기다렸다. 무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개입하셨고 섭리할 수 있었다. => 하느님의 사필귀정 : 눈앞의 현실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배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